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 제3회 학술대회



- 特講 = 日本齒大 須賀昭一 교수의 「치조골 - 구조 · 기능과 반응」
- 一般演題 = Occlusion-Basic and Clinic을 주제한 8명 연자참여.
- 기타 5개연제, 포스타전시 20연제, 구연 10개연제 발표.

지난 1월 26일 호텔 롯데 에메랄드 룸에서

국제치과연구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IADR)는 1919년 생화학자인 William J. Gies에 의하여 창립되었으며, 그때 창립목적은 치의학연구의 진보를 촉진하고 장려하며, 국가간에 문의 새로운 정보를 교환 하므로써 구강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었다.

66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3개의 지부 (American, Argentine, Australian & New Zealand, British, Canadian, Continental European, Israeli, Iranian, Japanese, Korean, Mexican, Scandinavian 및 South African) 가 있으며, 현재 55개국 이상의 회원 8,000명이다.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 (회장 金明國)는 3돌을 맞아 지난 1월 26일 학술대회를 성대하게 열어 치과학자의 관심을 모았으며,

회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한국지부가 바라는 것은

1. 친목보다는 학구위주의 모임이 되며.
2. 전공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자기 전공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3. 훌륭한 논문을 국제학회에서 많이 발표하므로써,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국위선양할 수 있는 학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회식 석상에서 IADR 한국지부장인 金明國교수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상의 내빈 : 좌로부터 須賀교수, 金英海학장, 李永玉치협회장, 金明國회장,
周煥초대회장, 丁東均직전회장, 閔丙淳경희치대학장, 劉東洙치협학술부회장)



〈특강연자인 須賀교수가 소개되고 있다〉



〈IADR 종무이자인 李種昕교수의 강연장면〉



〈학술행사를 마치고 화기애애한 만찬회장〉